

부정적 현실에 맞서 싸우며 살아온 사람이다. 따라서, '친구'는 인간의 행복이 단순히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 비판적일 것이다. 즉,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. 그러므로 '친구'는, 행복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다가온다는 <보기>의 논리에 대해 비판적일 것이다. 옳 <보기>의 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. (①,②), 그렇다고 <보기>의 글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다(③), 그리고 <보기>의 화자는, 인간의 불행은 상대적 빈곤감에서 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.(⑤).

32) ㉞ ④, 작품의 종합적 이해/④ '푸석한 얼굴'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나, 암울한 시대 현실 가운데 억압받는 대상을 상징하는 '벗'의 얼굴로 볼 수도 있다. 그런데 '면회마저 금지된' 친구와 '오랫동안 함께 길'을 걸었다는 표현으로 보아, 화자가 시대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왔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./오답 풀이 : ① 서민들의 '입김과 숨결'이 얼어붙은 성예를 정성스럽게 보는 행동은 그 '입김과 숨결'의 주인인 서민들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.② '엄동 혹한'이라는 시련 가운데 만들어진 성예를 '차가운 아름다움'으로 인식하고, 그것에 '취한다'고 말하는 것은 서민들의 삶에 대한 공정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.③ 서민들의 '입김과 숨결'이 '막막한 한숨'이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, 그들의 삶에서 느끼는 힘겨움에 대한 공감과 애정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.⑤ '면회마저 금지된 친구'는 구속된 벗으로, 당대의 시대 현실에 대한 아픔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.

33) ②

암울한 정치 현실 속에서의 우울을 노래한 작품이지만, 그 우울함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.

34) ③

35) ④

이 시에는 시대의 아픔이 드러나 있고, <보기>시에는 개인의 아픔이 드러나 있다.

36) ②

37) ⑤

38) ③

39) ③

화자는 성예꽃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다가, 불현듯 그것이 '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'이며 '정열의 숨결' 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들의 애환을 상상하게 된다. 즉, 화자는 '대상에 대한 관찰→대상과의 공감대 형성'으로 태도를 전환하면서 정서가 고양된다.

40) ③

화자는 차창에 맺힌 성예꽃에서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다.

41) ④

42) 외로운 황홀한 심사

모순 형용에 의한 역설법이 쓰인 시구를 찾는다.

43) 차가운 아름다움

44) 이 시와 <보기>의 화자는 '유리(또는 '유리창')'를 통해 대상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.

이 시와 <보기>에서 '유리창'은 화자와 대상의 간접적인 만남을 이끌어 내는 매개물이다.

<눈> 정답, 해설

- 1) ㉠ ㉡, 이 시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. 따라서 화자가 시대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.
- 2) ㉠ ㉡, 이 시의 화자는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.
- 3) ㉠ ㉡, '눈은 살아 있다', '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', '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'로의 점층적 전개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. |오답 피하기| ㉠ 작중 화자가 작품에 전반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. ㉡ 부정적인 현실을 '가래', '죽음' 등의 상징적인 소재로 표현하고 있다. 색채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. ㉢, ㉣ 이 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.
- 4) ㉠ ㉡
- 5) ㉠ ㉡, '눈'에서 흰색의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와 대조되는 색채는 나타나지 않는다. /|오답 피하기| ㉠ '눈은 살아있다', '기침을 하자' 등의 시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. ㉡ '눈은 살아있다', '기침을 하자'의 문장을 반복,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의미를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. ㉣ '순수함, 참된 가치' 등을 상징하는 시어 '눈'과 '불순한 것, 속물근성, 소시민성' 등을 상징하는 시어 '가래'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. ㉤ '-자'의 청유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순수한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독자에게 적극적으로 '함께' 행동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.
- 6) ㉠ ㉡ ㉢ ㉣의 경우, 1연과 3연이 대응되고, 2연과 4연이 대응되는 대칭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.
- 7) ㉠ ㉡, 이 시는 1950년대 광복 이후 정치 세력에 의해 억압된 민중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반영하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현실 참여 시이다.
- 8) ㉠ ㉡, |정답 해설| '기침을 하자', '마음껏 뱉자' 등의 청유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현실에 저항하자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. |오답 피하기| ㉢ '눈'을 의인화한 것은 맞지만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. ㉣ 이 글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의미로 확대되고 있는 자연적 공간은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는다. ㉤ 대조적 소재인 '눈'과 '가래'가 있지만 열거되지 않았고, 비교적 담담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. ㉥ 구체적 청자인 '젊은 시인'을 설정하여 부정적 현실의 극복을 위한 행동을 제안하고 있다. 이 글에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극복하고 있지는 않다.
- 9) ㉠ ㉡
- 10) ㉠ ㉡ 추상적 관념어가 아니라, 구체적인 일상어를 사용하고 있다.
- 11) ㉠ ㉡
- 12) ㉠ ㉡, |정답 해설| 이 시의 화자는 시에서 일관되게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취한다. 그러므로 1연과 4연, 2연과 3연이 화자의 태도가 대립된다고 볼 수 없다. |오답 피하기| ㉠ 모든 연에서 점층적으로 첫 행을 구체화시키고 있다. ㉢ 1연과 3연은 3행, 2연과 4연은 3행씩 배열하고 있다. ㉣ 1연과 3연은 '~다'의 평서형 어미로, 2연과 4연은 '~자'의 청유형 어미로 시 전체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. ㉤ 1연과 3연은 '눈'이라는 소재를, 2연과 4연은 '기침을 하자'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.
- 13) ㉠ ㉡, 이 시는 시구를 반복·변형하고, 이 과정에서 점층적인 진행을 보여 주고 있다. 이는 시의 리듬감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.
- 14) ㉠ ㉡ 이 글에서의 '눈'은 시련과 역경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.
- 15) ㉠ ㉡
- 16) ㉠ ㉡, '기침을 하자'는 마음속의 불순한 것을 뱉어 내자는 의미, 또는 마음속에 쌓여 있는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의미이지 분노와 증오를 누르고 참으라는 의미는 아니다.
- 17) ㉠ ㉡
- 18) ㉠ ㉡
- 19) ㉠ ㉡, '가래'는 억압, 구속, 자신의 부패성, 속물성, 비겁한 일상성, 소시민성 등 부정적 현실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지니게 된 부정성을 의미한다.
- 20) ㉠ ㉡
- 21) ㉠ ㉡, |정답 해설| '새벽'은 눈의 강인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이다. 화자의 자기 정화 의지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볼 수 없다. |오답 피하기| ㉠ '눈'의 흰색과 관련되어 '눈'의 순수함이 드러난다. ㉡

- '기침'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소재이다. ㉢ '죽음'은 '눈'의 생명력과 대립되는 안일한 삶의 태도로, '젊은 시인'의 지향점과 반대에 있는 요소이다. ㉤ '가래'는 '눈'과 대립하는 부정적인 소재로 '눈'의 순수함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.
- 22) ㉠ ㉡
- 23) ㉠ ㉡ ㉢ '마당'은 실제의 마당을 가리키므로,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없다.
- 24) ㉠ ㉡ 이 글의 '눈'은 순수함을 뜻하므로, ㉡의 '눈'과 유사하다. ㉠은 고난과 시련을, ㉢은 애상감의 정서를, ㉣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, ㉤는 슬픔의 정서를 지니고 있다.
- 25) ㉠ ㉡ 점층적 확장 관계를 이루는 예를 찾는다.
- 26) ㉠ ㉡
- 27) ㉠ ㉡, |정답 해설| |보기|에서 불순하고 부정적인 현실에 희생당한 존재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. |오답 피하기| ㉢ |보기|에서 지금까지 비굴하게 억눌려 지낸 것을 떨치고 시대의 양심을 지키자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. ㉣ |보기|에 나타난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던 시인의 의식에서 알 수 있다. ㉤ |보기|의 '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지사적 태도'에서 알 수 있다. ㉥ |보기|의 '더러움과 허위로 가득찬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'에서 알 수 있다.
- 28) ㉠ ㉡, |정답 해설| |보기|는 효용론적 관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. ㉢은 '눈'을 감상하고 난 뒤 독자가 느낀 깨달음 및 교훈에 관한 내용으로 효용론적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한 예다. |오답 피하기| ㉠ 내재론적 관점이므로 |보기|와 거리가 멀다. ㉡ 표현론적 관점이므로 |보기|와 거리가 멀다. ㉢ 반영론적 관점이므로 |보기|와 거리가 멀다. ㉣ 내재론적 관점이므로 |보기|와 거리가 멀다.
- 29) ㉠ ㉡
- 30) ㉠ ㉡, '광야'에서의 '눈'과 '눈'에서의 '눈'은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. '광야'에서의 '눈'은 일제 감점기라는 부정적 현실을, '눈'에서의 '눈'은 순수한 생명을 의미한다.
- 31) ㉠ ㉡, 이 시의 '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'를 김수영의 시론에 연관 지어 보면, 부정적 현실에 무기력하게 안주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며 순수와 정의를 지키려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- 32) ㉠ ㉡, 김수영이 요구하는 시인다운 시인이란,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인류의 운명에 적극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. 따라서 '젊은 시인'은 이와 유사한 조건을 갖추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.
- 33) ㉠ ㉡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
- 34) ㉠ ㉡ 젊은 시인,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
- 35) ㉠ ㉡ 버려야 할 불순하고, 속물적이고, 부정적인 것들
- 36) ㉠ ㉡ 가래
- 37) ㉠ ㉡ 깨끗하고 순수한 삶 또는 정의로운 삶